【한솔CSN, 올 하반기 물류인프라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총력】

종합물류인증기업 한솔CSN의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 했다. ①성장엔진 발굴 ②타겟산업 신규수주 확대 ③글로벌화 ④소프트경쟁력 강화 등으로, 기업 인수 · 합병(M&A)을 통한 규모의 성장을 이루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꾸준한 수익기반을 발굴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전략으로 삼았다.

또한, 부산 신항 배후물류부지 진출 등을 통한 국내 거점 확보와 인프라 확충, 그리고 해외 유수 물류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와 중국 법인 설립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유통업체들이 확대하고 있는 소싱 물류인 신규 비즈니스 영역을 적극 개척하여 해외 물류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경영방침인 '소프트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산업별 전문가 인재 육성, 우수한 IT시스템 구축, 컨설팅력 배가 등 솔루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더욱 더 심화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노하우(Knowledge)를 강화하고, 전문 물류 컨설던트들의 꾸준한 영입과 집중적인 교육 실시, 그리고 목표관리 고도화와 중장기 정보화 계획(ISP) 수립에 따른 투자집행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운영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거점 통합과 원가경쟁력 확보,그리고 전략적 소싱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더 향상되고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Supply Chain Value Innovation 창출에 주력할 것이다.

최근 제조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산업별 전문화 전략으로제 3자 물류(TPL) 분야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한솔CSN은 한 전문분야에 오랜 물류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우수한 소프트 경쟁력과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물류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력 산업인 제지에서 완벽하게 탈피, 국내 제3자 물류 신규 수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솔CSN은 주요 타겟군인 전기전자 · 도소매유통 · 자동차 부품 · 화학 등에서 삼성광주전자, 삼성테스코, 제일모직(패션 및 화학부문), GM대우, 한국라파즈석고보드 등 대형 물류 화주를 유치하여 괄목할 말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올 하반기에도 주요 타겟군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화된 컨설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수주한 기존 고객의 경우, 성공적인 3PL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통합물류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 고객사 물류혁신 활동에 만전을 다하고있다.

올 현재까지 한솔CSN이 유치한 신규 수주 업체로는 아모레퍼시픽(온라인 및 홈쇼핑 부분), 코오롱, 삼성전기, 삼성토탈, 만도 등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실적에 비해 약 10% 이상 성장한 추세다.

한솔CSN이 제3자 물류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수한 컨설팅 능력을 갖춘 전문 컨설던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은 단순한 물류기능이아닌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및 판매까지 SCM (공급망사슬관리)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고객사 생산계획 입안이나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은 화주기업이 자사의 핵심역량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 생산품 재화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대고객 만족을 얻고 있어 고객사 경쟁력 제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KL-Net, EDI 이용요금, 쓰신 만큼 돌려드려요!】

세계적인 물류IT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주식회사 케이엘넷(KL-Net, 대표이사 : 박정천)이 고객의 EDI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KL-Net은 EDI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후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적립된 포인트로 EDI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EDI포인트 적립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사용분부터 포인트 적립을 시행하고, 신규 빌링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0월부터는 KL-Net 홈페이지에서 적립금을 조회한 후 이용을 신청하면 다음달 EDI 이용요금에서 해당적립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결제토록 함에 따라 KL-Net EDI 고객은 실질적인 요금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L-Net 박정천 대표는 "포인트 적립서비스의 시행으로 KL-Net의 수익은 감소하겠지만, 회사의 이익을 다소나마 고객에게 환원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포인트 적립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립율 확대 및 적립금 사용방법을 다각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KL-Net은 고객의 EDI 비용 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료 부담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월 상한액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부담없이 KL-Net의 다양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객의 중복전송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EDI요금 감소를 위해 주요고객들에게 중복 전송률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450원/KB이던 EDI요금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330원/KB)하고, 지난 3월부터는 PORT-MIS 내항서식을 무료화 하는 등 EDI 이용

요금 경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KL-Net은 이번에 다각적인 이용료 경감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KL-Net EDI 이용고객들이 이용료 절감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인 EDI요금 책정을 위해 8월 중에 외부전문기관에 EDI 요금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2007년도 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라 향후 KL-Net의 EDI 요금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진정보통신, 대우로지스틱스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한진정보통신은 최근 대우로지스틱스의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우로지스틱스의 물류업무시스템, 해운업무 시스템 및 관리업무시스템을 단일한 환경으로 통합하여 웹기반의 물류 · 해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이번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는 연계 체계로 구현해 경영 의사결정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이후 물류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보세운송업, 임차승인신청서 없어진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입기업의 신속한 보세운송 화물처리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운송사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수단을 임차사용하는 절차를 개선(승인제 → 승인절차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세운송업자가 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된 운송수단을 별도의 임차승인 절차 없이 사용토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세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세운송차량이 부족하여 타 보세운송업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당사자합의에 따라 임의사용이 가능하다.

보세운송시 1회에 한해서만 기간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해 · 차량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연장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연간 약 400여건 혜택) 종전, 다수 또는 거대 보세운송 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분할보세운송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구리 · 아연 등 비금속설(가루)의 부정유출을 우려하여 보세운송 도착지가 비금속설 '전용장치장'이 아닌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을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 도착지가 '전용장치장'이 아니더라도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수출입관련 업계가 원자재 등의 수입관련 물류관리상 시간 · 비용 · 인력을 상당폭 절감하고 신속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물류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에 일조하게 됨은 물론, 매년 약 22억원의 추가적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몽골에 우편물류 전문가 파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증연)는 몽골 우정사업 현대화를 위해 우편정보화 전문가 2명을 8월 28일부터 10월27일까지 2개월간 몽골 우정청에 파견한다.

파견되는 전문가들은 현지 우정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몽골의 우정전산화 · 우편물류시스템 고도화 · 인터넷 우체국 등에 대한 기술 및 정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몽골로의 우편 물류 전문가 파견은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를 위해 우편자동화 및 정보화 전문가를 파견한 이후 두 번째로, 앞으로 우정현대화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의 전문가 파견요청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증연 본부장은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개도국의 우정사업 현대화를 위한 IT전문가 파견은 한국의 우수한 우편물류시스템과 우정서비스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편설비 및 IT장비 등을 수출하는 토대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정보기술, 우편물류시스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정보기술 컨소시엄이 사업규모 167억대의 정통부 우편시스템 성능개선 및 DR센터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동안 우편물류통합시스템 전산장비도입 사업의 1단계 1차 시스템은 삼성SDS, 1단계 2차 시스템과 2단계 시스템 구축은 현대정보기술이 담당했으며, 현재 유지보수는 LG-CNS와 현대정보기술이 담당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주요 업무내용은 4웹서버, 웹응용서버, 연계서버통합 등 서버증설 및 구성 4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4 관리툴 도입 및 시험환경 구축 4DR센터와의 원활한 연계체제 구

축 4접수, 집배, 종추적, 플랫폼성능개선 등 응용시스템 성능최적화 4우편정보 DW 단순이전, 물류시스템, ePost 시스템 무중단 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대정보기술컨소시엄은 2007년 3월 본 가동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전산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위 및 통합테스트를 거칠 계획이다.

【중국심천시 한국물류유통단지 설립추진】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회장:서병륜)는 한성기업관리(심천)유한공사(KTC GLOBAL)와 공동으로 중국심천평호 지역에 한국물류유통단지를 설립하는 MOU를 지난 9월 19일 체결하였다.

국내 물류 기업의 중국 사업 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설립되는 한국물류유통단지는 심천 평호 물류단지내에 설립되며, 중국 광동성 내의 한국제조기업에게 최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천시 평호 물류단지는 넓은 면적에 오염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에 위치하여 주변환경과 교통시설, 기지의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물, 전기 공급과 통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시설도 입주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현재도 인프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성기업관리(심천)유한공사는 중국최초로 한국기술 중국생산의 모든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연구, 개발, 전시, 마케팅, 유통, 보관, 수출입을 하는 종합 물류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관리하는 한 · 중 합자기업이다.

중국 물류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물류유통의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대한 상담 · 자문 등 기타 물류 유통관리에 필요한 물류 센터 건설, 유지 관리, 전문기업으로 한국물류유통단지를 운영 관리하게 된다.

한국물류협회와 한성기업관리(심천)유한공사(KTC GLOBAL)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물류개선과 유통망 확보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심천정부의 관련부서와 물류, 유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국 심천시 전시센터에서 심천시 인민정부/중국(심천)물류구매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 1회 2006 중국(심천)국제물류&공급망 관리(SCM)박람회 내에 설치된 한중 물류공급망 관리(SCM)교류 전시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를 합의하고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자 하는 업체를 모집 중이다. (문의: KTC GLOBAL 02-6434-1991번, 한국물류협회 02-706-0823)

- 부지위치: 중국 광동성 심천시 평호 지방
- 규모: 170,000여 평
- 투자조건: 한국물류유통센터 건립 후 임대 사용
- 부지답사계획: 2006년 10월 말경

【DHL코리아, 영동 서비스포인트 오픈】

DHL코리아(www.dhl.co.kr)는 국내 아홉번째 서비스포인트인 영동 서비스포인트를 강남역 부근에 오픈하고 다양한 고객 행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DHL의 영동 서비스 포인트는 강남역 부근의 하루 유동인구 20만 명에 달하는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서류 특송 서비스를 비롯한 소화물, 중형화물 등 종합 국제 특송 서비스를 제공, 강남 지역 고객들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DHL코리아는 이번 서비스 포인트 오픈을 기념하여 "We Are Open" 이벤트를 개최하고 10월 말까지 영동 서비스포인트 오픈 전단지 쿠폰을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DHL에서 제공한 DM을 가지고 영동 서비스포인트를 방문하는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 중 DHL 수출화물 특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발송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일주일에 3명에게 10kg 이하의 소화물을 무료 발송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DHL코리아의 알란 캐슬스 (Alan Cassels) 사장은, "DHL코리아는 전 지역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포인트를 계속 오픈하고 있다. 이번 아홉번째 서비스 포인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여 국내 특송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DHL코리아는 이와 같이 DHL 서비스포인트 외에 세븐 일레븐 편의점과 전국 16개 대학에 DHL 제휴 접수처를 설립하여 고객에게 찾아가는 국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